

한정호의 클래식 슈퍼스타즈

한정호

공연 평론가·에투알클래식 대표



이탈리아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2월 6일(현지 시간) 열린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회식 무대에 올랐다. 보첼리 개인으로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폐회식 이후 20년 만의 올림픽 무대였다. 2006년 토리노 올림픽 개회식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맡았던 상징적 역할을, 이번에는 AC 밀란과 인테르 밀란의 흡구장인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보첼리가 이어받는 구도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회식 공연

피아니스트 랑랑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에 이어 다시 올림픽 무대에 오를 것처럼, 올림픽 공식 개·폐회식에 두 차례 초청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첼리가 지닌 국제적 영향력과 슈퍼스타의 위상은 충분히 확인된다. 엔리코 카루소에서 프랑코 코렐리를 거쳐 파바로티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가 자국의 대표 테너를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존중해온 전통은 보첼리의 올림픽 출연으로 다시 이어진다.

클래식·팝·크로스오버의 경계를 특유의 음성으로 허물어온 보첼리에게 챔피언스리그 결승이나 올림픽 개회식 같은 월드 이벤트는 정식 오페라 극장보다 더 자연스러운 무대다. 오늘날 이탈리아가 세계를 향해 내세우는 ‘국가의 목소리’가 더 이상 순혈 오페라 테너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첼리가 누리는 각광의 이면에는 ‘오페라 중주곡’ 이탈리아가 맞닥뜨린 그늘 또한 함께 드리워진다.

1958년 토스카나에서 태어난 보첼리는 네 살 무렵부터 알아온 당요의 영향으로 시각 장애가 일찍 시작됐다. 열두 살 때 축구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로 시력을 상실했지만, 이전부터 점진적인 시력 감퇴를 받아들어왔기에 주변의 우려만큼 공황은 크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운곽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0년 내한 공연 당시 필자는 주최사 직원으로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보첼리 부부를 영접했다. 출국장을 나서 차량에 탑승하는 동선에서 보첼리는 빠른 걸음으로 장애물을 피해 차에 올라 경호원을 놀라게 했다.

과거 전막 오페라에 오른 보첼리 모습을 봐도, 사연을 모르는 관객이라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다. 당시 전막 오페라는 대개 보첼리 맞춤형 연출로 설계됐다. 무대 중앙으로 이동할 때는 얇은 실을 이용해 위치를 가능했고, 측면에서 부촉하는 캐릭터를 설정해 보첼리의 연기 동선을 확보했다. 자신을 실명에 이르게 한 축구에 대한 원망도 점차 누그러졌는지, 2016년 산시로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아무도 잡을 수 없다’를 불렀다.

보첼리에게 자신의 눈과 같은 존재는 연인이다. 첫사랑이자 첫 아내였던 엔리카 센자티는 1987년 바에서 레슨비를 벌던 무명의 보첼리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이후 이탈리아 록스타 주케로와의 합동 공연을 계기로 두 사람은 결혼에 이르렀다. 보첼리는 자신의 음악 인생이 빛을 본 계기가 엔리카 덕이었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밝혀왔다. 두 아들 아모스와 마테오가 탄생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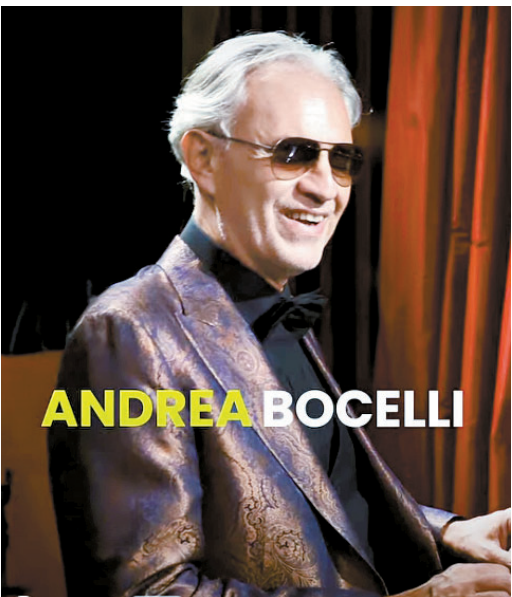
음악과 가정이 전부였다고 말해온 보첼리는 우울한 시기를 보내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성악가 이바노 베르티의 딸 베로니카 베르티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던 보첼리가 활력을 되찾기 시작한 시점 역시 베로니카와의 만남 이후다. 가톨릭 전통에 따라 두 사람은 정식으로 재혼하지 않았지만, 로마 교황청은 교황과의 만남에 이들을 여러 차례 공식 초청했다. 베로니카는 사실상 보첼리의 배우자로서 외부 활동을 함께하며 음악적 조언도 아끼지 않았고, 파파라치들은 지금도 이들을 따라다닌다.



1 이탈리아의 세계적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2 지휘자 정명훈과 함께한 음반 ‘카르멘’.

(사진 위키미디어 커먼스, 안드레아 보첼리 공식 홈페이지)

# 한 소절만 들어도 알 수 있다 장애를 이긴 대체불가 음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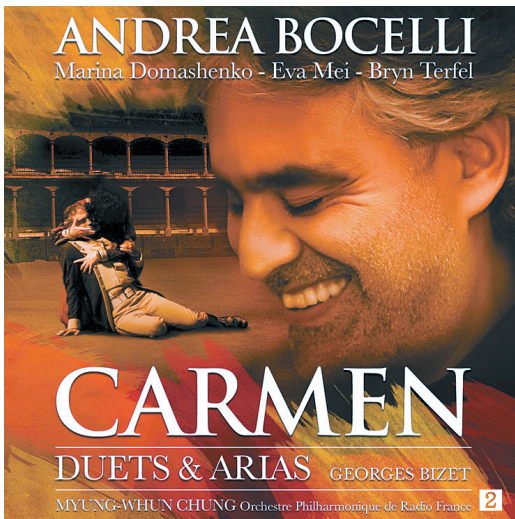


안드레아 보첼리의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회식 무대를 알리는 게시물. (사진 올림픽 인스타그램)

이탈리아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일찍이 장애 앓다 12살에 시력 상실  
90년대 지휘자 정명훈과 음반 협업  
‘포스트 스리 테너’ 열거되며 명성

성악 완성도보다 음색 자체가 자신  
클래식·팝·크로스오버 경계 허물어  
68세에도 클래식 가수 경쟁력 유지



과 함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집전 미사와 수원 야외음악당 내한 공연을 함께했다. 이후 정명훈이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음악감독으로 부임한 뒤에도 두 사람은 ‘카르멘’ 녹음으로 다시 호흡을 맞췄다. 정명훈급 지휘자와의 협업은 무명 신인 보첼리의 네임 밸류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2007년, 루치아노 파바로티 타계 직후 웰스트리트저널은 특집 기사에서 ‘후계자’들을 열거했다. 살바토레 리치트라, 롤란도 비아손, 라몽 바르가스, 마르셀로 알바레스, 로베르토 알라냐, 요나스 카우프만의 이름 사이에 보첼리 역시 포함됐다. 2000년대 중반에 이미 정통 오페라 가수의 경로에서는 사실상 이탈했지만, ‘스리 테너급’의 상업성과 대중적 파급력만큼은 정론지에서도 높게 평가받았다는 방증이였다.

정작 보첼리 본인은 한동안 ‘포스트 스리 테너’로

뭉이는 질문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왜 자신과 호세 쿠라, 알라냐를 같은 선상에 놓는지 기자에게 되물곤 했고, “차세대에는 세 명이 아니라 서른 명의 테너가 나와야 한다”고 말해왔다. 다만 2010년 내한 공연을 앞두고 이런 질문 자체가 사라지자, 보첼리 측 대변인은 오히려 아쉬움을 드러냈다. 보첼리 스스로도 정통 클래식계에서 자신의 음성이 비주류임을 잘 알고 있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자각지심이 엮였지만,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걸출한 이탈리아 후배 테너가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는 묘한 입장 역시 감지됐다.

보첼리 공연의 단골 지휘자인 유진 콘은 “카랑가 강한 음색과 칸초네에 어울리는 프레이징 면에서 보첼리를 제압할 이탈리아 테너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정통 성악 교육의 아이러니’로 표현했다. 다만 보첼리는 자신을 ‘일 디보’나 ‘텐 테너스’류의 파파레 가수로 호명하는 미디어에는 일관되게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보첼리의 상업성은 2020년대 중반에도 유효하다. 2025년 포브스가 집계한 당해 연도 음악인 수익 순위 톱30에서 그는 연간 2500만 달러(약 340억원)로 24위에 올랐고, 클래식 음악가로는 유일하게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 통산 9000만 장 이상 판매된 음반, 매진 행렬을 이어온 라이브 공연, 브랜딩 광고, 후원 계약, 마야애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작년 음악가 수익 순위 톱30 올라

그렇다면 보첼리의 음악적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2010년대 이후 세계 최고 테너로 각광받아온 요나스 카우프만의 소리를 듣고, 과거 파바로티나 도밍고의 목소리처럼 단번에 가수를 맞히는 대중은 이제 소수다. 보첼리는 다르다. 홀리오 아글레시아스가 ‘헤이’ 한 소절만으로 자신을 각인시켰듯, 보첼리는 ‘Mai pi cos lontano(다시는 멀어지지 않으리)’의 ‘마이 피우’만 들어도 누구인지 즉각 알아차리게 한다.

정규 성악 교육에서 강조하는 성대 컨트롤, 호흡 분배, 모음 처리의 완성도보다 음색 자체의 변별성이 보첼리가 지닌 최대 자산이다. 파바로티처럼 청명한 하이 C를 내는 ‘잘 부른 소리’가 아니라, ‘누가 부르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소리’에 동시대 관객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반응해왔다. 중음역에서 형성되는 어둡지 않은 톤은 이탈리아 전막 오페라의 정통 미학과는 거리가 있지만, 칸초네의 혈통을 연상시키는 음색이라는 점에서 보첼리는 칠순을 바라보는 지금도 여전히 클래식 가수로 확고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탈리아어 원어민이 아니어도 이탈리아어가 ‘들리는 듯한’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가수가 희귀해진 오늘날, 오페라하우스보다 레코드 플레이어에서 더 강한 보첼리의 음성은 대체 불가능하다.

클래식에서 슈퍼스타급 오페라하우스에서의 성공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정통의 경로였다. 그러나 보첼리는 오페라하우스 바깥에서도 클래식에 기반한 슈퍼스타가 성립할 수 있음을 커리어로 증명했다. 그의 성공은 성악계가 ‘매혹적인 소리’ 자체에 다시 집착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보첼리를 상업적 이유로 장애 서사 안에 가두려 한다면, 그가 이룬 성취는 우리 시대가 허락한 잠깐의 환희에 머물지 모른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한정호 공연평론가. 런던 시티대 대학원 문화정책 매니지먼트 석사. 발레리나 박세은, 발레리노 전민철 등 국제적 예술가의 에이전시와 문화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에투알클래식 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